

범깊이를 측정한 뒤 경부전이와 예후 등과 비교하여 그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결 과 :**

1) 72시간 포르말린 고정에 의한 설 조직의 부피감소는 12.3%이었다.

2) 설암의 육안 국소소견의 최대직경과 광학현미경적 암조직이 침윤된 심부침범정도와의 연관성은 상관계수 R=0.655의 유의성이 있었다(p<0.05).

3) 근층침윤 표면의 최대직경과 근층침윤 정도와의 상관계수는 R=0.849로 매우 연관성이 있었다(p<0.05).

**결 론 :** 설암의 진단에 있어 육안적인 소견만으로 침범정도 및 전이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심부절제범위의 추정 가능하다. 근층침범 자체만으로 경부전이율이 상당히 증가됨을 알 수 있었고, 이런 경우 향후 치료에 있어 근치적인 경부확청술 등 한층 더 광범위하고도 적극적인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9**

**설골하 근육 피판과 요골측 전박 유리피판을 이용한 설암 결손부 재건**

김영모\* · 조정일 · 이충재<sup>1)</sup> · 이세일<sup>1)</sup>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성형외과학교실<sup>1)</sup>

구강암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설암에 대한 치료는 술후 섭식 및 언어 기능의 회복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를 위하여 설암 수술 후 남은 조직의 가동성 여부, 감각, volume이 기능 재건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광범위한 크기의 근피판이나 유리 피판을 이용하여 volume 효과를 줄 수 있었고 sensated flap을 이용하여 술후 감각 기능의 회복을 유도하고자 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건 방법이 운동 기능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non-contractile 조직으로 위축되거나 반흔 조직화 되면서 점차 구강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아직까지는 효과적인 운동 기능의 회복을 유도하는 재

건 방법이 어려웠는데 저자는 2례의 설암 환자에서 an-sa cervicalis와 superior thyroid artery 분지의 지배를 받는 infrahyoid neurovascular flap과 sensated forearm free flap을 동시에 이용하여 효과적인 혀의 기능 재건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10**

**설암적출후 감각 전박 유리피판을 이용한 구강의 기능적 재건술**

김민식\* · 조승호 · 박영학 · 선동일  
김형태 · 유우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구강은 정상 연하 및 구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혀는 이러한 생리학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설암적출후 여러 재건술이 시도되고 있으나 술후 이러한 생리학적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데는 혀의 가동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과 감각의 유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Urken(1994)은 전박유리피판을 이용한 이엽형 감각피판(bilobed sensate flap)을 고안하여 구강재건에 이용하였고 저자들은 이러한 피판을 변형한 다엽형 감각전박 유리피판(multilobed sensate radial forearm free flap)을 도입하여 10명의 환자에서 설암적출후 설, 구강저 및 편도와 재건에 이용하였다. 10명의 환자중 7명의 환자에서 장기 추적관찰 및 감각회복과 구음기능의 평가가 가능하였다. 7명중 4명에서 피판의 감각회복이 나타났고 7명중 6명에서 만족할만한 혀의 가동성 및 구음기능이 평가되었다. 설종양적출후 구강의 재건에는 생리학적 기능을 고려한 다엽형 감각전박 유리피판을 이용한 재건이 이상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11**

**두경부 악성종양 수술후 유리피판술에**